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 소식

7월

2012년 7월 통합 239호

발행인 : 광선희 /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1동 352-2번지 3층 / TEL | 051) 556-1799 / FAX | 051) 556-1790 / hakbumo1@empal.com

- 여는 글 p2
- 기획글 | 일제고사 실시로 인한 문제점과 대응 방안 p3
- 청소년글 | 우다소사 체험 보고서 p6
- 회원탐방 | 박무준 회원을 만나다 p9
- 어린이글 | 섯다운제 p12
- 활동사진 p13
- 책 이야기 | 앨빈 토플러 청소년 부의미래 p14
- 영화소모임 | 아버지를 위한 노래 p15
- 교사 이야기 | 방학 잡감(雜感) p17
- 김옥량의 농장일기 p19
- 회원만남의 날 | 고추밭에서 p23
- 임재택의 생태육아이야기 p27
- 회원 글 | 이규남의 학교운영위원 분투기(9) p29
- 성명서 p31
- 기자회견문 p33
-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기사 p35
- 학부모알림란 p37
- 지부일정 p38
- 6월 회비 보고 p39



▲ 회원만남의 날에 텃밭에서

여는 글
함께 읽고 싶은 시

동해바다-후포에서

〈이만주〉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땃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보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넙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질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이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이 시는 자유시, 서정시의 갈래를 따르며 동해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싶은 소망을 노래한다.
1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지만 자신에겐 너그러운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2연에서는 너그러운 삶을 소망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통해
반성적, 사색적, 교훈적인 이 시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추천 : 이내훈)

기획글

일제고사 실시로 인한 문제점과 대응 방안

곽선희

1. 서론

2009년부터 시작 4년째인 일제고사가 올 6월 26일에도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일제고사 실시로 인한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더욱 확고하고 강력하게 일제고사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간 성적공개 및 서열화와 그에 따른 예산의 차등지급은 각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그로인해 학생은 물론 교사들까지 참다운 교육과는 거리가 먼 성적올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일제고사 실시와 그에 따른 평가는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실시 방법의 전환 모색 또는 폐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제고사 관련 파행사례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으며 외국의 사례에서도 일제고사 방식의 평가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일제고사로 인한 학생과 교사,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국내 사례별로 분석해 본 일제고사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6월 13일부터 5일간 전국 초.중.고 355개 학교 대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 대비 각 학교별 파행 사례를 수집한 결과 접수된 사례 중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0교시 수업 및 아침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례

정규 수업시간 이전에 등교하여 일제고사 대비 0교시 수업 실시

아침에 운영하는 담임 재량 교육 활동이나 독서활동시간에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

일제고사 대비 방송수업

담임교사 지도하에 일률적인 문제 제공 후 문제풀이 후 자습

- 7, 8교시 수업

정규교육과정에 없는 7, 8교시 수업을 참여 동의서 없이 전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실시

일제고사 대상학년들 중 방과후 특기정성을 제외하고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 교과학습부진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참여하는 희망과는 무관하게 강제 실시

‘학력향상반’을 만들어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 강제시행
 일제고사 과목을 묶어서 종합반 형태로 운영
 일제고사 과목인 국, 영, 수 중심으로 반복적인 문제풀이식 수업진행
 교재선정위 심의없이 부교재 선정 구입
 학교에 배정된 교과학습 부진 학생 지도수당을 다 써야 한다면서 모든 교사에게 지도 시간 강제배분

- 강제 야간자습

일제고사 대비 강제 야간자습 실시
 김밥이나 컵라면 등의 간식을 제공하여 일제고사 대비 야간자습 참여 유인
 야간돌봄교실을 일제고사 대비 수업으로 운영

-토요휴업일 등교

일제고사 대상 학년 토요휴업일 강제 등교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진행
 기초학력미달 예상 학생 토요휴업일 강제 등교 지도

정규교과시간에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 진행(토론, 탐구, 발표수업 등 사라짐)
 교과진도를 빨리 나가고, 남은 시간에 일제고사 대비 전년도 문제풀이 수업 진행
 (5월까지 1학기 진도 마침)
 일제고사일 2~3주전부터는 아예 교과서 진도를 나가지 않고 일제고사 기출문제집으로수업
 (일제고사 이후 초고속 수업을 통해 밀린 진도 보충)
 일제고사 대비 시험지 풀이 숙제 및 검사(사교육업체 발간 일제고사 대비 문제집 풀이 숙제)
 前학년 내용의 시험지, 학습지, 정리노트 등을 통해 복습 및 요점정리
 창의적 체험활동, 계발활동, 재량시간, 실과, 도덕 등의 시간에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예체능수업을 국, 영, 수 등으로 대체
 정규수업시간에 교과학습부진 학생을 따로 모아 일제고사 대비 특별프로그램 운영

- 정기 고사 파행

일제고사 관련 학습내용을 정기고사 문제출제시 반영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출제하지 않고, 전년도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는 것은 교육과정 위반임
 일제고사 기출문제집을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포함
 기말고사 시기를 앞당겨 일제고사일 다음날과 그 이튿날에 국영수사과 시험을 보고, 일제고사 기출문제
 에서 출제
 일제고사 대비 아침방송수업내용 일부를 기말고사 시험문제로 출제
 일제고사 성적을 수행평가에 반영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등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6~7회 실시계획 수립
 모의고사를 보면서 학습계획서나 출석부에는 정규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거짓 결과처리

모의고사로 인한 정규수업 미실시 및 보강계획 없음
 주간(월말)고사 폭증
 거의 매일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실시 - OMR 표기 요령부터 찍기 기술 연마에 이르기까지 반복 훈련
- 비교육적 금품제공
 일제고사 대비 주간고사 및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 개인과 학급별로 5천원 ~ 20만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일제고사 대비 시험 성적에 따라 떡볶이 등 간식 차별
 일제고사 성적(등급) 향상 학생 및 성적우수학생 상금이나 상품권 지급 및 상장 수여
 일제고사 성적(등급) 향상 학급 및 성적우수학급 상금이나 상품권 지급
 일제고사 성적 향상 기여 교사에 대한 포상

3. 대응방안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고사의 폐해와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 평가 체제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

끝없는 줄세우기와 그에 따른 상벌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경쟁의식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그 경쟁
 의식은 또다른 양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교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내지 않고는 결코 학생들이 행복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만다.

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가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반대 서명운동과 시위참여,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또 일제고사 반대 또는 일제고사 준비로 인한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단체 단위의 대응방안으로는 일제고사 폐지 민원 제기, 반대 기자회견, 집회, 토론회 등으로 문제점을 알
 리는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야 하도록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내지는 현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을 표본 선정으로 개
 정하고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학교 교육에서 기본적
 으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행복이다.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모든 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곧 교사들의 행
 복과도 상이한 문제가 아니라 여겨진다.

우리 다함께 소중한 사람들

설재욱 (연제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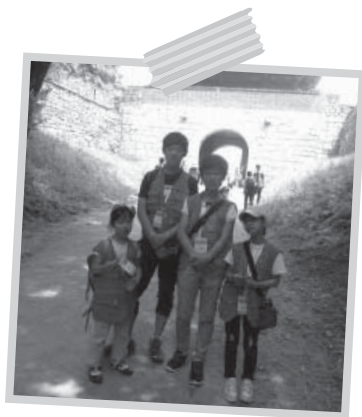
5월26일 나는 우다소사(우리다함께 소중한 사람들)라는 자원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이 봉사 활동은 소외아동과 함께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일보호자가 되어 돌보는 활동이다. 난 짝을 만나기전엔 남자일꺼라 생각했지만 여자아이여서 썸 당황했었다.

그래서 인지 대화도 잘 못하고 어색한 체로 버스를 타고 문경새재로 향했다. 처음엔 짝과 어색했었지만 간식을 주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시켜주니 좋아해서 그때부터 어색함도 약간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간 후 문경에 도착해서 단체로 사진을 찍고 코스에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짝과 함께 같이 갔지만 갈수록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갔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거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잘 못했던 생각이 든다.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짝과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코스를 따라 다 걷고 버스로 돌아와 우리 집으로 향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해보면서 이러한 아이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난 행복하게 자라왔단 걸 깨달았다. 미흡했던 점도 많았지만 다음에 또 참여하게 된다면 그땐 실수도 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에 참여해야겠다.



봉사활동 소감문

김동진 (연제고1)

◆ 장소: 문경새재 금의환향길

◆ 날짜: 5월 26일 토요일

◆ 활동 내용

이번에 부모님이 봉사활동을 이리저리 알아보시다가 이 우다소사(우리 다함께 소중한 사람들)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봉사활동이라면 지하철봉이나 쓰레기 줍기와 같은 것들만 해보았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뭐든 처음에 하면 그렇듯 걱정이 앞섰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아이들과 말이 잘 안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이 도착했다. 처음 본 아이들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초등학교 학생들이었다. 그중에서도 몇 명은 장난기가 많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범했다. 그리고 한명씩 돌봐줄 아이를 정해 주었다. 나는 내 친구 2명과 같이 참여 했는데 그 친구 2명은 모두 어린 여자아이들을 맡게 되었다. 그중 한 아이는 말도 없어 보이고 낯을 좀 가리는 것 같아 보여 좀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나는 김수영이라는 남자 아이를 맡게 되었다. 나는 이왕 할 거 열심히 하고 당당하게 봉사활동 시간을 받자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에게 나름 먼저 다가갔다. 다행이었던 점은 수영이가 별나지도 않고 6학년이라 철이 꽤나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쉽게 친해졌고, 열심히 하자고 다시한번 생각했다. 그에 비해 다른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을 맡아 고생 꽤나 하는 것 처럼 보였다. 중간에 머문 휴게소에서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면서 더 친해졌다. 문경새재에 도착하고, 처음에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도착했다, 거기서 몇 가지 자료들을 보고, 금의환향길로 향했다. 거리는 8.5km로 꽤나 긴 거리를 걸어야 하는 코스였다. 처음 2km쯤을 걷고 나니가 몸이 지쳤다. 정말 힘들겠구나 싶었다. 다만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라 훨씬 수월했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8.5km를 겨우 다 걸어 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차가 막혀 예상도착시간보다 훨씬 지연됐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도착했고 수영이와 작별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 활동 소감

말은 아이가 워낙 착하고 어른스러워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은 거의 끝나갈 때 좀 지친 탓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 주지 못하고 개인행동을 조금 했다는 점이다. 만약 다음에도 시간이 된다면 또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고, 그때는 끝까지 아이들을 잘 돌봐 줘야겠다.



문경 금의환향길 체험학습 후기

안 승 호 (만덕고1)

처음에 버스에서 어떤 소사를 만날까? 우다의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타고 선생님이 소사의 자리를 불러 주는데 내 옆자리에는 누가 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석이란 친구를 만났다. 처음에 생태학습장에 가기 전까지 너무너무 어색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말을 건네 보기로 하고 “이름이 뭐야?”라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남자애들이 좋아한다는 게임을 하자고 했다.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진사람 이마를 때리는 걸로 했다. 그걸로 어색함은 조금 무마되었다. 우리는 마침내 백두대간 조령에 도착하였다. 거의 입구? 비슷한 곳이었었는데 그곳에서 다른 친구들 이랑도 한컷!! 입구에서부터 큰 바위가 있는 게 앞으로 갈 길이 험악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우리는 금의환향길 입구에 다다랐다. 여기 이상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곳에 소사들이 다 앉고 사진 한컷! 여기서는 산길이 오르막길이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내리막이 있어서 조금 수월했다. 여기서도 초반이랑 민석이와 어색함을 안고 등반을 했다. 그리고 민석이는 약간 무뚝뚝하고 개그코드도 찾기가 힘들었다.ππ

금의환향길의 진짜 입구라고 할 수 있는 3관문!! 3관문에서 아주 귀여웠던 소사와도 또 한컷 역시 민석아 좀 웃어줘잉~~ 3관문에서 휴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구나?? 특이한건 맨발로 걷는 것이었는데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맨발로 걸어볼걸 이 생각과 후회가 계속 된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 말 처럼 금의환향길에 가면 금의환향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시간은 흘러흘러 2관문에 다다랐으니 우리는 힘들어서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지만 민석이와 약간씩 이야기도 나누면서 많이 친해 지다보니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게 되었고 여기 신청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면서 민석이에게 많이 친해 질수 있었던 계기가 또 한번 마련 된 건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책바위 라는곳에 들르게 되었다. 여기 책바위는 선비들이 과거를 치르러 갈 때 여기에 들러서 성적이 좋게나오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나도 기도 할걸 ππ 이번시험에서 제발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민석아 좀 웃어!

그리고 거의 마지막을 알리는 1관문!! 이때는 우리 둘 다 피곤의 극치였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아 버스에서 바로 자야겠다.” 민석이가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



회 원 탐 방

■ 박무준 회원을 만나다

이번 주 회원 탐방의 주인공은 2005년 참학에 가입한 박무준 회원이다.

평소 직장일로 무척 바쁜 박무준 회원은 참학의 인터뷰 요청에 평일 낮 점심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었고, 인터뷰는 점심 식사를 겸하기 위해 참학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하게 되었다.

궁금한 것은 나중에 전화로 묻고 우선은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드시라는 좌중을 편안하게 하는 박무준 회원의 가벼운 농담을 시작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Q : 참학에 가입하시게 된 계기를 듣고 싶어요.

A : 벌써 7년 쯤 전의 일인데...큰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을 모금해 달라고 요구해 왔어요.

집사람이 아이의 학교에 다녀온 뒤 아직도 이런 것이 있냐고 하길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 고민하다 참학에 의논하러 왔던 것이 인연이 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Q : 찬조금 모금 일은 어떻게 되었나요?

A : 학교에 항의를 하고 학부모들이 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당시 일은 우리 사회 여러 부분이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과도기적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 지금도 학교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면 많은 학부모들이 단호히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A : 얼마 전 중학교에 다니는 막내아들이 숙제를 안 해 가서 선생님께 한 대 맞았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자기편을 들어줄까 기대하는 아이에게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어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 같으니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일동 웃음)

요즘 학교를 보면 선생님들이 소신대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주변의 눈치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학부모들의 응원이 교사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면 가벼운 식사나 작은 선물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식사 대접 정도는 하고 싶고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나 선생님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 속에 있어서 찬조금이나 촌지 등에 별 거부감이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흔드는 과한 금품은 안 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Q : 최근 참학 행사에서 자주 뵐 수 있어 좋았어요.

A : 참학에 가입하던 즈음에는 제가 직장을 옮긴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정말 바쁘게 일했어요. 오랫동안 일했던 신문사에서 건설 회사로 이직,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도 매년 참학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간간히 참석하긴 했었죠.

이제는 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해서...얼마 전 참학 여행 모임에 갔었고 저번 주 회원 만남의 날에 참학 농장에도 갔었어요.

특히 회원 만남의 날에는 여러 회원들과 어울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아내와 함께 참석하고 싶습니다.

Q : 회원이지만 밖에서 객관적으로 참학 활동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았는데....

A : 주변 사람들 중 참학을 운동권 내지는 특정 정부(김대중, 노무현)를 지지하는 단체라고 보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회원이다 보니 타인들의 그런 비판에 “참학은 순수하고 밝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죠.

우리 단체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 학교를 지탱하고 바른 교권 확립과 교육계의 비리를 타파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주위 분들께 참학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으시네요.(웃음)

A : 당연히 잘 설명해야죠.(웃음)

제 성향 자체가 중도, 중립적입니다.

신문사 재직 시 제가 노조부위원장 출신으로 인사과장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신문사 측이 저를 노조와 회사의 입장을 중간에서 잘 조율하고 반영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쪽저쪽의 입장을 살피다 보니 당시에는 ‘회색분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회색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두 사람이 이념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상생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틀어졌을 때, 두 사람을 잘 아는 제 삼자가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려 화해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색 즉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회사에서 사측과 다른 쪽의 입장을 조율하는 대외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학이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교육계와 참학이 대립각을 세우다 갈등이 발생해 중재할 일이 생긴다면 제가 그 일을 맡으면 되겠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Q : 아이들을 얘기 좀 해 주세요.

A :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바깥일에 전념하느라 아이들 교육은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관여를 안했

어요. 아내가 교사 출신이라 평소 아이들 교육에서 푹 부러지는 면이 있어 믿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큰아이가 교대부속초에 다닐 때에는 일일교사로 아들 반에 가서 강의도 하고 관심을 가졌으나 늦둥이 둘째는 제가 정말 바쁘게 활동할 때 태어나서 어떻게 컸는지도 몰라요.

지금에 와서 무심했음을 느끼지만 우리 세대의 남자들이 대부분 대동소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 애는 지금 군 복무 중이고 둘째와 주로 대화하는 데 용돈을 쥐도 쓰지 않고 모우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혹시 집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라더군요.(웃음)

둘째를 보고 있으면 모범생으로 커왔던 나와 다르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Q : 끝으로 참학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 참학이 강성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싸워야 하는 명분을 가졌을 때는 열렬히 싸우고 평상시에는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들을 더 알지게 하는 역할을 해 줬으면 합니다. 밖에서는 참학의 양면성을 다 보고 있으니까요.

점심시간,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에서 식사도 해야 하고 얘기도 해야 하고 여느 때보다 손과 입이 바빴던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가 끝이 났다.

오후 업무를 위해 서둘러 자리를 뜨는 박무준 회원과 인사를 하고 잠시 참학 사무실에 들렀는데 실장님이 사무실 게시판에 달려있는 시계를 가리키며

“저 시계는 3년 전 참학 총회 때 박무준 회원이 사온 겁니다. 박무준 회원은 바쁜 가운데서도 해마다 잊지 않고 참학 행사에 참석하는 회원 중 한 명이죠. 평상시 참학에서 보내는 전체 공지 문자를 대부분의 회원은 읽기만 하는데, 박무준 회원은 꼬박꼬박 그 문자에 답을 보내옵니다. 세심하고 배려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실 양 극단에서 대립하는 사람들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섬세한 이해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또 일이 잘될 경우 양측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나, 잘못될 경우 양 측과 다 척을 지게 되니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일에 자신이 있다는 박무준 회원의 말은 그가 너그럽고 합리적인 사람인 동시에 위기 상황을 기꺼이 감수하는 도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이런 면모가 참학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의 만남을 마무리할까 한다.

박무준 회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다음 참학 모임에는 아내와 아들과 동행하겠다는 약속 잊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정리 : 신지원〉

● 김태우 (부산송운초6)

셋다운제

오늘 저녁, 난 사촌형과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했다.
 사촌형이 학원에서 저녁식사시간에 맞춰 잠시 집에 들른 때였다.
 채팅 내용 중에는 요즘 게임을 주말 빼고는 절대 못해서 심심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원래는 평일에 30분~1시간 정도 게임을 하기로 약속되었지만 이제는 여성부에서 시행한 셋다운제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셋다운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성부 측에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몇몇 게임은 셋다운제에서 제외되었지만 온라인 게임은 전부 셋다운제에 걸리게 되었다. 게다가 이제는 스타크래프트 I, 스타크래프트 II 군단의 심장, 스타크래프트 III 자유의 날개 라는 오프라인 게임도 셋다운제에 걸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에 있는 스타크래프트 제작 회사인 BLIZZARD 사에서는 반발이 심했지만 결국은 단속에 들어갔다.
 셋다운제가 시행된 2011년 11월 29일,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셋다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만 찬성하는 내용의 글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셋다운제로 시행했으면 그것만으로도 게임회사 망치는 것 충분하니까 쿨링오프제만 실시하지 마라!” 라는 내용의 글이 꽤나 많았다.
 쿨링오프제란 게임을 2시간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꺼졌다가 10분후 재접속 후 다시 2시간동안 하면 다시 꺼져 그날은 더 이상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들 중 가장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게임시장이 셋다운제와 쿨링오프제에 의해 망쳐지는 것을 우려해 많은 사람들과 게임회사가 반대하고 있다.
 온게임넷 스타리그를 통해 잘 알려진 게임 ‘카트라이더’의 프로게이머 문호준 선수는 특히 반발이 심했다. 문호준 선수는 97년생으로 아직 중3인 학생이다.
 그래서 연습을 못해 타이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도 현재 중국 게임회사가 우리나라를 앞질러간다는 것을 고려해 셋다운제에 반대한다.

(태우는 김성미회원의 자녀입니다. 자신의 문제라 여기니 관심 갖고 보나보네요.
 앞으로도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 가지고 좋은 글 많이 써서 보내주세요!!)

활동사진

▶ 학습선택권 조례 재의요구
철회 서명 활동



◀ 시의회앞 일인시위



▲ 교육주체결의대회



앨빈 토플러 청소년 부의미래

- 앨빈 토플러 / 하이드 토플러 -

손재광

◆ 역자(김종웅):

여지껏 발간된 앨빈 토플러의 책 -1970년 〈미래 쇼크〉, 1980년 〈제3의 물결〉, 1990년 〈권력 이동〉등은 지식 혁명이라는 충격적인 미래와 그 안에서 사회 각 부분의 권력의 구조적 변화를 기술해 왔다면 2006년 성인판 〈부의 미래〉는 예리한 분석으로 그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롭게 출현할 '부 창출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는 미래는 낙관적이고 희망적이며 현재의 사회와는 혁명적인 차이를 보이는 질서와 제도,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실현 가능한 긍정적인 미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손재광):

성인판 〈부의 미래〉가 출간된 후, 미래의 삶에 대비하는데 나침반이 될 그의 예견이 필요한사람은 오히려 청소년들이기에 이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공장식 입시 경쟁에만 내몰린 한국의 청소년들의 갈증에 - 변화하는 세계와 다가올 미래, 그 사이에 불안하게 놓여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 맛있는 음료수가 될 것 같습니다.

◆ 앨빈 토플러:

시간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가진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비할 폭넓은 지식을 키워 갈 것은 물론, 앞으로 복잡하면서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와 마주하는 두려움에도 우리 인간의 창조성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며 책을 냈습니다.

◆ 나 (손재광):

당신이 말씀하시는 '혁명적 부'를 창출해내는 여건 중에

시간(time)과 관련하여 '속도의 충돌'부분이 흥미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9대의 자동차 중에 시속 140킬로미터로 2위를 달리는 시민 단체는 멋져 보이는데, 겨우 시속 15 킬로미터로 달리는 부서진 고물 자동차의 정체가 바로 '학교'라는 비유에는 공감하면서도 속이 많이 상합니다. 변화의 속도를 맞추는 일- 그래서 청소년들이 미래에 자기가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는데 이 책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앨빈 토플러:

사회와 삶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래에 대한 비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없다면 변화에 휩쓸리기만 할 뿐 능동적으로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아무리 변화의 민첩성이 중요하더라도 어디로 갈 것인지 목적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나 (손재광):

오늘날 우리들 삶 곳곳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위기 - 특히 '민주주의'와 이혼하려 한다는 - 속에서 부(자본)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시사하는 바가 큰 당신의 말로 오늘 만남을 이만 마칠까 합니다.

여든이 넘는 연세에도 긍정적인 열정과 뛰어난 예지력을 보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의 혁명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제도적, 교육적, 문화적, 정치적 성숙 없이는 진정한 부의 혁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노래(This Must Be the Place)를 보고

- 아버지를 위해 떠난 여행길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성장하다 -

글: 김 정 속

▶ 감독: 파올로 소렌티노 / 출연: 손 펜, 프란시스 맥도맨드, 주드 허쉬, 고든 마이클스 / 2012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리의 국민적 영화감독 파올로 소렌티노는 자신의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돌이키며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50대 남자의 뒤늦은 성장담'을 완성시켰다. 주인공 '세이엔' 캐릭터는 모두가 알아보는 유명한 록스타이지만 내면에는 아픈 상처와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인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자신 때문에 두 명의 젊은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30년 동안 우울한 노래만을 불러왔던 그는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들은 후 아버지의 못 다 이룬 복수를 대신하는 여정을 떠난다. 30년 동안 비행기를 한 번도 타지 않고 무료한 삶에 그럭저럭 만족해하던 그에게 그러한 여정은 큰 변화이자 도전이었던 것. 그리고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듯 위태로운 삶을 살던 그가 다시 현실에 발을 내딛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한다. 여정 중 만나게 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아버지란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생이 그런 거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며, 오랫동안 연주하지 않던 기타도 연주하게 된다. 결국 아버지를 위해 떠난 여정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이 된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장하는 그의 모습은 관객들에 깊은 사색의 공간을 열어주며 새로운 성장을 위한 인생 지침을 알려준다.

영화의 원제 'This Must Be the Place'는 록밴드 토키 헤즈의 노래 제목이다. 1974년 미국 뉴욕에서 결성된 토키 헤즈는 아직도 세계 최고의 지적 밴드로 평가받고 있는 그룹이다. 2002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며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 있으며 보컬인 데이비드 번이 손 펜과의 특별 연기를 펼친 영화이다. 뿐만 아니라 'This Must Be the Place'를 직접 라이브로 부르는 그의 모습은 큰 보너스이다.

〈아버지를 위한 노래〉의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은 칸 영화제와 인연이 깊은 감독으로 2004년 〈사랑의 결과〉와 2006년 〈패밀리 프렌드〉로 각각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2008년에는 〈일 디보〉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 “그의 작품은 재치 있는 몽타주와 아이러니, 페이스스가 넘쳐난다” “이제 소렌티노가 내놓는 모든 작품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때가 왔다” 등의 호평을 받으며 세계적 감독의 반열의 올라섰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

결혼하여 신혼여행 다녀와 부산으로 가는 짐을 챙겨 트럭에 싣고 차가 떠나려하는데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차를 탕탕 두드리며 오서가라는 손짓을 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영화 속 주인공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상처입은 가슴으로 긴 여정을 보냈고 아버지의 죽음을 맞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셨지만 나는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몸으로 느껴왔다.

아들이 돌씩이나 있어도 집안의 대소사를 나랑 의논했고 나를 가치있게 만들어 주셨다.

올해가 아버지 팔순이라 친척들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 내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당당함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라고, 그 옛날 돈 한 푼 쓰는 육성회장을 하시면서 경남 교육감을 찾아가 부당함에 맞서시던 아버지이었다고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렸다.

지금 아버지는 치매초기인 어머니랑 하루하루를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

젊은 날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하고 한량으로 지내신 시간의 댓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계신다. 지난 달 진주에 갔을 때 “아버지, 엄마는 환자니까 엄마말씀에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힘드시죠?” 했더니,

“다 내가 안고 가야하는 데 뭐. 괜찮다.” 하시는 말씀 뒤끝은 흐려있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위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소모임에 오세요. 갈수록 참여자도 늘어갑니다. 백미영, 박선희, 김정숙, 김옥랑, 함정화, 이미옥, 최경희, 김옥랑제자, 뒤풀이에서 이모든 미모의 여성분들에게 술을 사신 김종만이 함께 봤습니다. 7월-9월 화요일 8시 영화의전당에서 무료상영 있습니다. 예수, 미션 등 추억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7월에는 화을 저녁시간 비우시고 오세요

방학 잡감(雜感)

노영민 (신정고 교사)

여름 방학을 앞두고 지금 학교는 부산하다. 학기말 시험이 곧 시작되고 방학 중 보충수업 시간은 이미 확정되었다. 3학년은 대학입시 설명회가 벌써 열리고 있고 이번 학기에 마무리해야 할 일이 연일 교사들에게 시달린다. 올해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방학 기간이 대폭 줄어 올 여름 방학은 정확하게 한 달 31일이다. 줄어든 방학 일수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충수업 시간도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보충을 빠지려는 학생들과 학교에 붙잡아두려는 교사 사이에 벌어지는 실랑이는 예전과 다르지 않다. 우리 어머니 예전에 하시던 말씀이 떠오른다. ‘개 한 마리 잡아봐야 불알 빼려고 쫓 빼려고 나면 남는 것 없다’ 하시던 말씀. 학생은 학생대로 얼마 안 되는 방학을 보충으로 다 보내는 게 불만이고, 학교는 학교대로 예전에 비해 줄어든 보충 시간과 빠지려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다. 보충을 글자 그대로의 보충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면 되겠다 싶건만 언제 낱말 뜻대로 세상이 돌아간 적이 있는가. 너무나 당연하다 싶은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이 2,500년 지난 오늘날도 생생하게 또는 낯설게 인구에 회자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는 답임도 아니고 보충수업을 하지 않은 지 오래 된 사람으로서 관망만 하고 있는 축이지만 전혀 생각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한 중에 나의 고등학교 방학 시절이 문득 떠올랐다.

1. 방학의 추억

나는 중학교 입학시험의 마지막 세대이고 고등학교는 내 다음 다음 학년부터 추천 입학제로 바뀌었다. 베이비붐 세대로 출생의 운이 없는 편이랄까, 거기다 실력도 모자라서 중학교 1,2차를 다 떨어져 3차 추가 모집하는 학교로 진학했다. 그 시절의 C급 중학교에 다닌 셈인데 그 학교에서 ‘닭대가리’ 노릇을 하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1차는 떨어지고 2차 B급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C와 B의 차이는 참으로 컸다. 그때는 주초고사라 하여 매주 월요일 시험을 쳐서 그 성적을 합산하여 등수를 매겨 매달 우편으로 성적을 발송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3월 입학 첫 달의 성적은 60명 가운데 49등, 그 다음 4월 성적은 47등(성적표 보내온 편지 봉투에 아버지께서 붉은 글씨로 ‘더욱 정진하기를! 아버지가’라고 써놓은 글귀가 지금도 생각난다.), 다시 51등, 54등, 1학기 말 성적은 56등으로 마쳤다. 학기 말은 수우미양가로 표시되었는데, 미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학기말 성적을 보고 ‘야, 이거 큰일났다’하는 위기가감이 강하게 엄습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름 방학을 통해 그간 뒤쳐진 공부를 만회하지 않으면 끝장이다 싶었다. 학교가 쉬어도 이상 진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거기다 나보다 앞서가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풀어질 시기인 방학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 싶었다. 그 때에도 영어는 송성문 선생이 쓴 ‘정통종합영어’, 수학은 홍성대 선생의 ‘수학정석’이 유명했다. 나도 물론 그 책을 가지고 있었다. 참으로 ‘장안의 지가’

를 오랫동안 올린 책, 그런데 내게는 너무 어려웠다. 두껍기도 했다. 책장을 열면 기부터 먼저 죽이는 책이었다. 이젠 56등 학생이 볼 책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 나는 그 책들을 포기했다. 대신 여름 방학을 조금 쉽고 얇은 송성문 선생의 '정통핵심영어'와 정경진 선생의 '수학 완성'과 함께 보내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보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학교와는 관계없이 나 스스로 이룰테면 '비상'을 걸었던 것이다. 방학 기간 내내 두문불출, 그 더운 여름날 선풍기도 없는 동향의 좁은 방에서 팬티만 입고 공부했던 기억이 새롭다. 엉덩이에는 땀띠가 났었다. 개학날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9월 성적은 무려 42계단을 뛰어 14등! 영어를 가르치셨던 담임선생님은 내 성적 향상을 격려해 주시며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셨다. 그 뒤 내 성적은 그 근처를 오르락내리락, 더 이상 큰 진전은 없었지만 나로서는 참으로 뿌듯한 여름 방학 '보충'의 추억이다.

2.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

여름 방학 보충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얼마전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여 지금 시의회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름도 긴 조례,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나는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등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을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으로 하게 한다는 조례를 교육감이 거부한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자율’로 해야 할 일을 ‘강제’로 시키니 그것을 학생들의 ‘자율’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 ‘강제’로라도 시행하겠다는 것, 이것만 해도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치심을 느낄 일이거늘, 교육감의 평가 업무에 대한 ‘고유’ 권한과 정규 교육과

정 외 학습활동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니 안 된다? 교육감이 말하는 그 자율은 무슨 자율일까?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킬 자율?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에는 없는 체벌이 야간에 등장하고,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얼굴 붉힐 일이 없는 담임과 학생 사이에 도망갔네 아니네, 아픈 것 거짓말이네 참말이네 하며 서로 반감을 조장하는 자율? 교육 수요자, 교육 공급자, 교육 서비스 등 온갖 시장의 언어를 동원하여 학교를 24시 편의점으로 만들어 놓고는 아직도 보충수업 등을 강제로 팔고 사게 만드는 자율? 평안 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그만, 정규 교육과정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외는 당연히 학생들의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할 일이 아닌가. 아이들을 진정 위한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고, 교사들을 진정 교육 가족, 교육 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보충수업요? 선생님들 보충수업용 아닌가요?” 하는 아이들의 비아냥 듣는 일부터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려한 평교사의 생각이지만 교육 개혁 별 것 있는가, 낱말 뜻대로, 정명(正名)으로 교육을 하는 것, 그것 말고 무엇으로 교육 개혁을 출발할 것이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어떤 일이 있을까? 나로서는 도저히 풀기 어려운 숙제를 가슴 가득 올해도 안고 나는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있다.



고구마 심기 (2012년 6월 3일)

6월 첫 주와 둘째 주가 고구마심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라 한다. 고구마는 복을 크게 해주어야만 알이 잘 크다하여 오늘 일하신 멋진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다. 호박고구마 모종은 순을 길러서 자른 것이 좋다한다. 약 100포기가량 심었는데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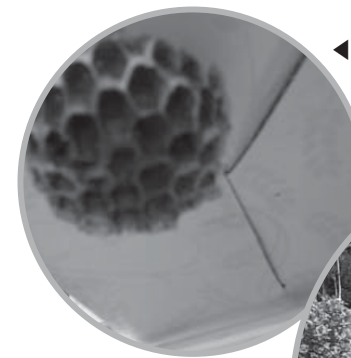
보너스로 고수를 8포기 상추밭 사이사이 심었다. 그러면 벌레들이 향 때문에 안 온다 한다. 좀 더 다양한 채소를 심어서 경험해볼 예정이다.

이제 토마토가 붉게 익어갈 준비를 한다. 순을 많이 잘라 주어야 열매가 많이 맺는다고 농사 고수 한분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잘 해주신 덕분이다. 감사!

농장이 점점 푸르러 간다. 이제 알록달록 꽃을보는 재미에서 나뭇잎 바람에 흔들리며 춤추는 공연을 즐겨볼 생각이 다.

일꾼들 옷차림이 화려한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다음 부터는 농작물 보다 이쁘게 차려입는 거 금지 해야 겠다. 특히 우주의 중심 광 선희님 양산 부터 ㅎㅎㅎ

보너스,,,꼬마벌집이 농막에 등지를 틈 휴식을 즐기는 농부들과 간식!!?



◀ 농장을 지키는 벌집



조정화, 김정숙, 김종만▶



▲ 고구마 수확을 기다리며.



허브를 심으며 (2012년 6월 10일)

상추밭을 줄이고 허브와 나물을 심어 보기로 했다. 로즈마리 애플 민트 ...참나물,,,
심고 기르는 맛이 자식을 키우는 기분이다.
상추도 우리가 심은 얼굴이 제일 이쁘게 보이는 것도 정이 들어서 그럴 것이다.
가지도 이제는 줄지어 나타난다. 한 5일되면 나물 해먹을 만큼 크는 듯 하다.
토마토는 처음 시식 했는데 회원 만남의 날엔 손님대접을 할 수 있을 듯 하다.
옆집에서 수확하는 작물들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함께라는 것이 그리고 우연에
서 오는 인연들 아마도 마음이 같은 곳을 바라보기에
모두 즐거운 만남이 된다.
자급 자족의 의미를 점점 더 짙하게 고민하게 되고
건강한 먹거리를 키워서 잘 먹고 사는 삶을 텃밭을
통해 배운다.



기쁨의 회원만남의 날을 마치고 (2012년 6월 16일)

먼저감사!! 고마움 사랑으로 꾸벅!!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해요. 그리고 손님들께 반갑게 인사 하려고 예쁘게 커 준 가지 불그레 익어간 토
마토, 작은 키에도 피꼬리 쑥 내민 옥수수, 주렁주렁 자란 고추, 늦게 심었는데도 노랑꽃 피어준 오이, 힘차게 뻗어
가는 호박, 손님대접 못할까 걱정 시키지 않으려고 알 키워준 감자..
모두 고마워요.
오늘 행복 준 모든 인연 아마도 열매에 가득 담겨 더 예쁘고 맛나게 자랄 거라고 믿어요. 함께 하지 못한 참학 가족
모두 마음으로 같이 해요.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 농장 작물들과 함께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풍성할거예요.
농장 오르는 계단 멋지게 만들어주신 권용욱쌤 감사!
오늘 모이신 분들의 합창. 참교육학부모단체가 필요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일 모두의 희망이었어요. 우린 할 수
있어요. 모두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니깐요.
정성으로 진심으로 건강하게 농작물을 키우는 것처럼 사랑으로 참 교육을 키우는 힘과 서로 마음이 같으니깐요.
오늘밤은 일기를 쓰면서 눈에 가득 밤이슬을 담고 있어요. 행복해서요.

작은 후원을 해 주신 분들, 맛있는 점心和 막걸리를 준비해주신 농장 팀들 모두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분: 객선희, 윤영근, 김정숙, 김종만, 채승영, 권용욱, 배종만, 장유성, 박무준, 김석준, 최한, 이인경가족(4
명), 이미옥, 김옥랑, 박미옥, 노귀전, 최은화, 주정현)

- 회원만남의 날에 오신 분들의 글입니다 -

‘오랜만에 나와서 반가운 얼굴들 만나고 적당히 담가지 흘리니 너무 좋아요’-김석준

‘참학은 참 생활’- 박무준

‘착한사람들의 선한 모임 싱싱한 채소들로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노귀전

‘기쁨 뭐라고 표현하노?’-배종만

‘감자, 토마토, 가지, 상추, 고구마, 정구지...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윤영근

‘그냥 산에와서 좋아요!! 좋은만남 계속하지요!! 또 볼 수 있을지요??’-최한

‘참학 회원들의 삶을 가꾸어주는 농장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최은화

‘참학이 너무나 필요한 모임인데 참석도 못하고 마음만은 항상 응원합니다’- 이미옥

‘참학회원 만남의 날 주말에 하니 넘 좋아요.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좋은하루!!

평소 보고 싶었던 분들 얼굴보고 좋은 공기에 왕수다에 참말로 배부르고 행복한 하루였어요’-채승영

‘10년쯤 만에 회원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고 즐겁고 고맙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하게 곁에 가지고 무궁한 참학의 발전을 바라며 파이팅!! 외칩니다’-주정현



▲ 수확물- 감자, 가지, 상추, 토마토, 고추, 깻잎,
방풍나물,치커리, 케일

▼ 권쌤이 낸 계단



비오 날 (2012년 6월 24일)

농장을 둘러싼 산의 품이 잔잔한 따스함일 것 같아 비오는 날,
그 곳에 있어 보기를 간절히 바랐다.

후두둑 비닐 하우스 안에서 막 컵에 마시는 커피 맛은 예술이다.

빗소리는 작물이 물 먹는 소리로 들리고 옆으로 흘린거 주워먹는 땅에서는 갈증을 참느라 뜨거운 입김을 뿜어낸다.

주말 농부에게겐 비가와도 휴식은 허락되지 않는 걸 처음 알았다. 많은 일들을 해야 1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다.
감자를 두더지가 밤마다 와서 맛을 보고 간 흔적이 역력하다. 다음 주에는 수확을 해서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 분배는
감자로 가난한 시절을 건넌 강원도 음식을 해서 나눌 생각이다. 메주콩을 불려와 짜투리 땅을 찾아다니며 심었다. 이
젠 누구의 땅 경계도 없다.

좋았다. 구분과 경계가 없다는 것이 속이 시원하도록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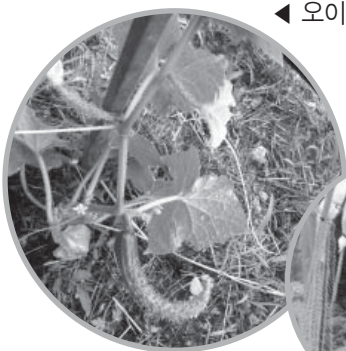
나중 그것이 우리의 콩이 아니어도, 인간의 콩이 아니어도 어쩌면 인간의 콩이 아니길 더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그랬
으면 좋겠다. 우리가 산이 바다가 절로 키워준 작물을 손에쥐고 형제의 기쁨을 누리듯 자연에 사는 동물에게도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는 집이 텃밭 한가운데에 해바라기만 한 무더기 심어놓았다. 그 마음에 감사했다. 활짝 핀 웃음이 농장 들어서는 이
에게 합창으로 맞아 주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경계심 없이 보내는 하루는 갑갑한 도시삶의 값진 보약이다.

비가 세게 쏟아지는 기대를 안고 해물탕수제비를 몰로다 식구들 양을 조절하여 먹고 기다렸지만 단오날의 초승달은
알뜰도록 빼꼼히 구름 속에 숨어서 내려오는 우리를 산 아래까지 데려다 주었다.

◀ 오이꽃이 피고 오이가 달렸어요



▲ 김종만, 곽선희, 조정화



▲ 옥수수 열매 맺히는 소리에...



고추밭에서

● ● ●

이 인 경

“인경씨, 우리 같이 밭일 좀 해봅시다.”

“아! 예”

나는 원래 궁금한 게 많고 새로운 걸 해보는 게 재밌다.

도시 촌놈이라, 밭에 가도 뭐가 뭔지도 모른다. 밭구경하는 것도 가끔 절에 갈 때 뿐이다.

“엄마, 저게 뭐예요?” 아이들이 물으면,

“응, 저거... 건강 식품...”

그런 나에게, 밭일을 해보자니 신이 날 밖에...

고추밭에서 고추나무 아랫부분에 잎을 다 떼어내는 게 나에게 주어진 임무다. 그래야 위에 있는 열
매가 더 잘 큰다고 가르쳐주신다.

‘아, 그렇구나!’

난 ‘자연보호’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무조건 풀 한포기, 꽃 한송이도 꺾으면 안 되고, 따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가꾼다’는 것은 무조건 먹이는 것이 아니라, 떼어낼 줄도 알아야하는 것이구나.

하나. 고추밭에서 생각난 이야기.

난 우리 집에 무남독녀다. 누가 들으면 귀하디 귀하게 큰 소중한 딸이라 생각하겠지.

우리 집은 참 가난했다. 열 다섯 가구 정도가 단칸방 하나씩을 자치하고, 공동 화장실을 쓰는 집에
서 살았다. 그래서인지 마당은 꽤 넓어서 어린 내 눈엔 운동장처럼 보였다.

그리 가난해도 ‘새끼’라면 껌뻑 넘어가시는 우리 엄마 덕분에, 난 나름 귀하게 크긴한 것 같다.

당시에는 드문 외동딸인데다, 나이많은 할머니들이 보기엔 아들도 없이 딸만 덩그러니 하나있는 우
리 집이 위태로워보였나 보다.

“아들이 없어서 우짜노?”

“고추 하나만 달고 태어날 거 아이가...”



“그래도 집 안에 고추는 하나 있어야제...”

할머니들의 ‘고추타령’을 엄마는 그냥 흘려들으시는 것 같았고, 그런 엄마 태도 때문인지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다.

그런데 일곱 살 무렵이었나? 그 놈의 고추타령도 계속 듣다보니, 의구심이 들었는지 아니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였는지 모르겠다.

“엄마, 난 왜 고추가 없어?”

“여자는 원래 없는 거야.”

“왜 원래 없어?”

계속 물었지만, 엄마의 대답은 일곱 살짜리 여자애의 마음에 영 시원찮았다.

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다.

“엄마, 나 이거 붙여줘.”

엄마가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보셨다. 엄마가 안 붙여줄까봐 난 속이 상해서 눈물부터 나왔다. 내 눈물 탓인지, 소원한번 들어주려고 그러셨는지, 엄마는 내가 내민 풋고추와 실, 바늘을 받아드셨다.

풋고추에 실을 꿰어, 내 허리에 묶어주셨다.

허리춤에서 달랑거리는 파란 풋고추!

기분이 너무 좋았다. 마당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에 뭉게구름이 아이스크림 같았다.

난 하루 종일 그 고추를 달고 자랑스럽게 우리 집 마당을 뛰어다녔다. 옆집 할머니 집 앞을 지날 때는, 잘 보이도록 더 달랑거리며 열심히 뛰어다녔다.

‘나도 고추 있다!!!’

둘. 또 고추밭에서 생각난 이야기.

우린 어떤 식으로든 - 조상이 선비든, 만석꾼이든, 화전민이든, 산적이든 - 농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사를 하셨다고 한다. 그래도 한 대 위로만 올라가면 다 농사꾼이었을 것이라고 난 확신하다.

그런 농사꾼 핏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인지, 시골에 연고도 없어서, 멀리서 보면 벼하고 파도 구분 못 하는 나도, 텃밭을 가꾸고 전원생활을 하며 작으나마 나만의 농사를 지어보는 꿈을 꾀다.

내가 본 농사의 모습은 햇볕이 내리 쏘는 들판에서 농부들이 씨뿌리고, 농약통 짊어지고 약 뿌리고, 곡괭이질하고,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면 수확하는 모습이 다였다.(이건 대부분 다 ‘6시 내고향표’ 모습이었다.) 그리고 난 내가 농사를 제법 안다고 생각했다. 아니, 이게 농사의 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햇볕 잘 내리쬘고, 비 잘 오면 농사가 되는 줄 알았다. 풀한포기, 꽃한송이, 물한움큼을 소중히 생각하며 자연을 보호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줄 알았다. 도덕 시간에 배운대로...

그런데, 고추잎 아랫부분을 다 따버리라고? 저 소중한 것을?

그릇된 알팍한 얇이 깨어져나간다.

열매가 잘 익도록 에너지가 흐르는 길을 열어주고, 모아주고, 넓혀주어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배웠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잎은 성장의 장애물일 뿐...

학교도 이와 같은 것 같다. 알팍한 얇으로, 우리가 본 학교의 모습과 선생님의 모습이, 학교의 모든 것이라고 단정지어버린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국민 중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도중에 그만두었더라도, 모두 학교를 거쳤다. 그래서 모두 학교를 안다고 자부(?)한다.

난 교사가 되어 엄청난 잡무에 시달리다 시간에 쫓겨 교실로 들어서 보고나서, 교실에서 본 선생님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담임이 되어보고, 내 학생들이 내 새끼이듯, 나도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의 새끼였다는 걸 알았다.

학교에 출근해보고, ‘등교’와 ‘출근’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다른 아이를 제치고 ‘내 새끼’ 성적이 오르면, 적을 무찌른 개신 장군처럼 아이를 치켜세우면서도, ‘우리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보며, 다른 부모를 비판하는 내가 깨어있는 교사라고 착각했었다.

셋. 잡다한 이야기

이제 내 새끼도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나도, 농사를 바라보는 나의 무지몽매한 안목처럼, 내가 아는 교육과 내가 아는 학교의 잣대로 우리 아이의 학교와 교육을 바라볼까봐 조심스럽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놀라운 것은, 내가 인생의 어느 굽이에 서 있든, 그곳에 먼저 경험하시고, 깨어있는 분들이 표지판처럼 방향을 가리키고 계신다는 점이다. (그래서 난 늘 내가 ‘인복’이 많다고 자부한다.)

처음 이곳 모임에 나와 또 그런 분들을 만났다.(역시 내 인복은...!)

‘나이 40.

누구나 영화같은 삶을 꿈꾸지만, 돌아보니 인간극장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어려보이는 40을 기대했건만, 궁상스러운 중년의 초입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며칠전 내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 둔 글이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 재수없을 순 없다!!!



아이 자람의 시간에 따른 전래아기놀이 (2)

임 재 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기어다니고, 잡고 서려고 할 때쯤부터

12. 꼬네꼬네

- 동작

아기의 몸을 바로 세워 손바닥에 두 발을 올려놓고 “꼬네꼬네(고네고네)” 하면 아기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꼿꼿이 펴며 뒤통뒤통 거린다.

- 의미

‘꼬네꼬네’는 아기의 몸이 굽은 데 없이 바르게 펴져서 ‘꼿꼿하다’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짐작된다. 아기가 다리 힘을 길러 몸을 꼿꼿하게 펴서 견디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효과

아기가 서는데 필요한 힘을 기르고 균형을 잡도록 하기 위해 옛날 어른들은 “우리 아기 얼마나 컸나 한번 볼까” 하면서 아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 때 어른들은 ‘꼬네꼬네(고네고네)’라는 말을 빠르게 반복하면, 아기는 아슬아슬한 재미를 느끼고 즐기면서 힘과 균형, 자신감과 신뢰감을 쌓게 된다.

13. 따로따로(섬마섬마)

- 동작

아기가 붙잡고 혼자 막 일어서려고 할 때, “따로 따로(섬마섬마)”라고 하면서 아기를 방모서리에 기대어 세워 두는 놀이이다.

- 의미

“따로따로”는 ‘어른 도움 없이 혼자서’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섬마섬마”는 ‘서다’에서 온 말로서 ‘서서 엄마한테 오라는 말’로 풀이된다(단동십훈: 섬마섬마(西魔西魔) - 섬마는 ‘서의 마

귀’라는 의미로 서쪽의 정신에 물들지 말라는 교훈이다. 섬은 ‘서다(立)’의 준말로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조화로 홀로서기, 자주독립을 하라는 민족의 염원이 담긴 가르침이다.

- 효과

다리의 힘과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14. 불미불미(풀무풀무)

- 동작

아기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어 치켜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불미(풀무)노래를 불러준다.

노래가사 예시> 불 불 불무야/ 불어라 딱딱 불어라/ 우리 아기 불무야/ 불어라 땅땅 불어라/ 우리 아기 잘도 논다/ 불어라 딱딱 불어라/ 우리 아기 잘도 크다/ 불어라 땅땅 불어라/ 불아 딱딱 불아 땅땅/ 불 불 불어라/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불 불 불어라/ 이 날개를 툭탁 치면/ 수천 석이 쏟아지고/ 저 날개를 툭탁 치면/ 수만 석이 쏟아진다(- 백창우(2002). 「놀이노래」 中 -)

- 의미

아기가 두 발을 차례로 밟는 모습이 마치 대장간에서 풀무질 할 때 발을 밟는 모습과 닮아 이런 노래가 만들어진 듯하다. 풀무의 불처럼 힘차게 자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단동십훈: 불아불아(弗亞弗亞) - ‘불(弗)’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뜻이다. ‘아(亞)’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그래서 ‘불아’는 단군신화에서처럼 신이 사람으로 땅에 내려오고, 신선이 되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상징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어린이에의 예찬으로 풀이된다.)

우리 집에서 조금만 나와도 이렇게 좋은 산과 나무가 있고, 인심 좋게 푹푹 뜨고, 쓱쓱 잘라 나눠먹는 각종 채소 반찬과 씹, 감칠맛나게 구워온 고기에 막걸리 한 사발...

유쾌한 점심에, 듣직한 조연자들과 표지판이 계심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초심을 잃지않고, 속도를 지키며, 깨어서 나아간다면, 신나는 드라이빙의 시작이 아닌가!

왜 이제야 이런 걸 알았을까? 역시 난 바보!

아니!

나는 처음 나온 모임에서 어쩔 뻔했어 이런 걸 알았을까! 아, 난 천재다, 천재!!!

(이 글을 쓴 이인경회원은 울산지부에서 활동하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부산지부 와서 처음으로 참여한 회원만남의 날이었다. 남편,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소풍을 왔다. 육아휴직 기간이라 참학 참여 되도록 하시겠다고 한다.)





-효과

아기들은 다리가 땅에 닿을 때 힘을 쭉쭉쭉 쥐 다리에 힘이 오른다.

15. 걸음마

-동작

손뼉을 치면서 “걸음마” 하고 부르며 그 손을 잡으 려고 아기가 한 발짝 두 발짝 걸음을 떼어 놓는다.

-의미

“걸음마” 는 ‘걸어서 엄마한테 오라’ 는 말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효과

아기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떼어놓을 때, 손 뻗 치면서 기뻐하고 칭찬해주면 아기는 무한한 기쁨과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하게 된다.

16. 소리개 떴다

-동작

어른이 방에 누워 두 발바닥에 아기 배를 얹고 아기 손을 잡은 뒤 위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공중에서 아기를 빙빙 돌려주며 “소리개 떴다” 를 불러준다. 아기가 좀 더 자라면 두 손을 놓고 발 위에서 균형을 잡도록 조심스레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아기는 흔들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늘 높이 떠서 빙빙 도는 솔개(소리개)처럼 아기를 공중에서 빙빙 돌려 신나게 노는 전래놀이이다.

-효과

대략 첫돌을 거치면서부터 두세 돌이 지나도 계속 반복할 수 있으며, 흔히 알고 있는 ‘비행기 놀이’ 와 비슷한 것으로, 불안정에서 균형과 안정 취하고, 무서움 · 놀람 · 신남의 기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17. 목말타기

-동작

어른이 자기의 목 뒤에 아기를 올려놓되, 아기의

두 다리가 어른의 앞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두 손으로는 아기의 팔이나 다리를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곳저곳을 걸어 다닌다.

-의미

아기가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어른과 신나게 놀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전래놀이이다.

-효과

보통 돌 전후로 하는 놀이로, 아기가 몸을 가눌 수 있고 무서움보다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때 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 역시 불균형 · 불안정에서 균형과 안정을 취하게 되며, 새로운 것을 만날 때마다 “이건 ~ 이란다” “저건 ~이란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며 아기에게 새로운 세계를 느끼게 해주며 기쁨을 주는 놀이이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아기를 절대로 흔들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생후 6~12개월 된 아기의 머리나 몸통을 고의적으로 심하게 흔들면 아기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학대가 된다는 것이다. 한림의대 소아과 민기식 교수팀은 지난 10년간 ‘흔들린 아이 증후군’ 으로 6명을 진단하였는데, 그중 3명은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병을 얻은 것이었다고 한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 은 아이를 달랠 때 가볍게 흔드는 정도의 힘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1분에 120~150회 정도로 전신을 흔드는 속도와 강도라야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아이들은 오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시때때로 자기에게 쏟아지는 관심, 입맞춤, 간질임, 흔들림,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리기 등을 아주 좋아하면서 자라왔다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신체접촉을 통해 어른들에게서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자연만물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이다.



이규남의 학교운영위원 분투기

- 급식실 사건 -

이 규 남

(1)

중학교운영위 때의 일입니다.

영양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에야 가봅니다.

급식실을 찾아가니 조리종사원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예전에 조리원들이 쉴 공간이 없는걸 보고 학교에 건의해서 공간을 만들어 준일에 급식실 아줌마들한테는 저가 꽤나 인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운영위원님 오셨어요”하고 부르니 영양사가 한 걸음에 달려 나옵니다.

“예 선생님 새로 오셨다는데 얘기라도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많이 늦었죠?”

“아뇨 이렇게 급식실까지 신경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학교 급식실에 불편한 것이나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 급식실 버너가 처음 시설할 때 그대로라서 화력이 약해 음식을 할때 시간이 너무많이 걸립니다. 그런데다 국을 끓이는 솥이 구멍이 나버려 아이들 급식을 제시간에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리원 여사님들이 한 시간 일찍 나와서 하지만 그래도 제시간을 맞춰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학교 행정실에 얘기해서 조치를 받으시지요?”

“행정실에 얘기를 했지요.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급식비로 하라고 하니 달리 대책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급식실 하수구가 막혀 그걸 하느라 30만원 급식예산으로 처리했는데 버너랑 국솥은 알아보니 약400만원 든답니다. 이 돈을 빼내면 급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이만 저만 고

민이 아닙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분명 예산에 예비비가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아님 추경으로 처리를 해도 될터인데...

“예 선생님 제가 한 번 알아보죠” 하곤 행정실로 갔습니다. 교장과 행정실장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급식실에 버너랑 국솥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까?”

교장,실장 두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봅니다.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님! 급식실에 버너가 상태가 안 좋고 국솥에 구멍이 나서 급식을 제때 못한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급식실 직원들이 요즘 한 시간 일찍들 출근을 한다던데 알고들 계세요?”

(교장) “행정실장 이거 무슨 말이죠?”

(행정실장)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요.”

이 두 양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며칠 전에 급식실 하수도가 막혀서 공사한 사실 있습니까?”

“예, 하수구가 막혔다해서 우리학교 영선 하시는 주사님한테 수리 해 드리라고 얘기를 해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 본바는요 하수구 공사하는데 30만원을 급식예산으로 지출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버너와 국솥을 바꾸는데도 한4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급식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현재 급식실에는 대책없이 조리 종사원들이 새벽출근해서 식사를 준비한답니다. 빠듯한 급식비를 어디서 뵈 곳이라고 급식예산으로 시설을 하라고 합니까?”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온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 『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19대 국회가 새로운 희망을 걸고 역사적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경제 양극화에 우리 서민들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부디 이번 국회는 정쟁은 뒤로하고 정책과 민생이 꽃피는, 진정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래 두 가지 법안을 반드시 민생법안 1호로 선택하여 제·개정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지원규모의 차이가 커서 무상급식의 정책수혜를 받는 대상은 여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지역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 전반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은 초등학교 한두 개 학년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치단체 예산이 허락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시행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헌법적 기본권의 개념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정책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개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혹은 예산상황에 따라 그 지원내용과 범위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라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받아야 할 혜택이 일개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 혹은 지방재정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한나라의 건강한 교육과 희망찬 미래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급식예산의 국고지원은 헌법적 의무이며 가치입니다. 또한 광역과 기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 역시 무상급식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안을 민생법안 1호로 다뤄 올 해 안에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교육받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꿈과 희망을 위해, 더 이상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온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 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5% 안팎으로 매우 낮습니다. 최근 몇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식량생산변화가 가속화 되고 전 세계적인 식량가 폭등이 현실화 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쌀을 빼면 식량자급률은 5%대로 더 떨어져, 이대로 가다간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식량주권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행복할 권리, 고유한 먹거리 문화 등을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이라 할 수

(교장)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급식실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학교에서 조치를 해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했으면 교장선생님께 보고 드려 조치를 합니다.”

“예,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현재 그런 상태이니 바로 조치하시고 다음번 운영위때 조치사항 보고해 주세요”

해서 급식실 비품과 하수구공사비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급식실에 가면 영양사가 저랑 얘기를 안 합니다. 뭐든 물어보면 “예, 위원님 필요한건 없습니다. 학교에서 불편한 게 없도록 다 조치해줍니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알고보니 비정규직인 영양사가 쓸데없이 못된 운영위원한테 고자질한 걸로 낙인찍혀 호되게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교장 등 관리자들 눈치에 파리목숨입니다.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영양사를 보호하는데도 운영위원들이 신경을 써야할 듯 합니다.

(2)

고등학교운영위 때입니다.

중학교때는 직영급식이라 그나마 나았는데 고등학교에는 위탁급식을 합니다. 부산의 급식대기업 ㅅ유통, 씨푸드비페도 운영하고 있는 굴지의 기업입니다.

위탁급식은 기업의 이윤을 먼저 따져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하나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초, 중학교만큼 신경을 덜 써나봅니다. 저라도 열심히 뛰어 아지요.

월을 아침 일찍 학교 급식실로 검수를 갔습니다.

1학년 학부모운영위원임을 밝히니 영양사가 “행정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친절한 안내에 따라 배송차량 냉장 온도도 확인하고 차량 청결상태 식재료 날짜확인등등을 대충합니다.

저가 확인 하고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선생님 음식물은 재사용한다든지 그런 건없죠?”

“요즘 학교 급식실에서는 남은 음식은 전부 잔반 처리합니다, 절대 남은음식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당연히 그러셔야 하는데 가끔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서 급식사고가 나곤 하지요”

그럼 조리실 한번 둘러볼게요 하고 조리실에 들어갔습니다. 조리 시작 전이라 토월에 깨끗히 정리된 그대로 청결합니다. 제일먼저 식기세척기안을 열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대형식기세척기는 세척공간이 커튼 같은것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사님! 이것 한번 열어 보시죠” 하니 머뭇거립니다. 저가 가서 열어보니 밥솥이 있네요. 밥솥을 꺼내놓고, 다시 양은대야 모아둔 곳을 갔습니다.

“여사님, 이 대야 하나씩 열어 보세요.” 하니 그 곳도 머뭇머뭇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야채 샐러드랑 드레싱 종류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모아두고 사진촬영을 합니다 .

“선생님 남은 음식은 두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일월은 급식도 없는데 왜? 월월인 오늘 까지 밥이있고 샐러드가 있지요?”

“밥은 선생님들이 식사 후 꼭 송농을 드실려고 해서 송농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냉장보관을 안하고 식기세척기안에 보관합니까?”

“그건 지금 식재료가 오는대로 그걸 넣으려고 금방 꺼냈습니다.”

“그럼 드레싱과 샐러드는요?”

“그건 버려야 하는데 아까워서 저희들이 먹으려고 남겨둔 겁니다. 위원님, 절대 아이들에 식단에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밥은 정말로 누룽지로 송농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들께 확인 해보시면 압니다. 교직원 식당엔 매일송농이 나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 그냥 물어두겠습니다. 선생님 보다시피 사진도 찍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 일까지 같이 조치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첫 방문은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급식실은 꼭 들립니다.

위탁급식의 영양사는 아이들의 건강 보다는 소속 기업의 이윤이 먼저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욱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먼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기본권으로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법적 내용들은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적절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언급된 기본권규정과 현행 법률 가운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식량보장(안보)을 명시한 부분적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식량보장 관련 조항들을 포괄할 (가칭)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는 지속적인 생태농업을 전략적으로 증진시켜,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안전한 식량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먹거리 기본권은 적정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권리, 먹고 건강할 권리, 먹는 즐거움을 가짐으로써 행복할 권리, 고유한 먹거리 문화 등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먹는다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거나 박탈당할수 없는 가치입니다. 희망과 변화, 혁신의 기대로 시작한 19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적인 법안들을 하루속히 제·개정하여, 모든 교육현장에서 차별없는 밥상이 차려지고 온 국민들의 행복한 먹거리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2년 6월 4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지난 16일 ‘옷 로비 사건’으로 임혜경 교육감이 14시간 동안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임혜경 교육감은 옷을 받은 경위를 설명하고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단순한 선물이었을 뿐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런 교육감 둔 부산의 학부모와 시민으로서 더없이 창피하고 부끄럽다.

교육감이 되기 이전부터 청렴을 강조해왔다고 알려져 있는 임혜경 교육감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부산 교육계의 비리 척결과 청렴한 교육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청렴신고센터 운영, 부산시 교육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 청렴 퀴즈 등 교육공무원의 청렴을 지나치리 만큼 강조했다. 일선 교사들로부터 ‘말은 맞지만 관련 시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지경’이라는 빈축을 살 정도로 임혜경 교육감은 청렴한 교육자에 대한 의지를 갖가지 지침과 공문으로 강하게 표명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임혜경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모두 교육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교육공무원의 청렴만큼은 바람직한 정책이라 환영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실제 교육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 이후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던 초등학교 교장과 금품을 준 교사가 해임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건넸던 학년 부장교사가 해임되었다. 이를 보면서 인사 청탁과 관련한 학교 관리자의 비위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건여 야간자습 감독비, 교장 교감에게 간접 지도수당을 지급하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커졌다.

그런데 청렴을 그렇게 강조하던 임혜경 교육감 자신이 직위와 관련된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

검경은 임혜경 교육감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밝혀야 한다. 임혜경 교육감과 특정 교구업체와의 유착 또 공립 유치원 증설 계획 변경과 학급 수 감축 등으로 임혜경 교육감이 받은 옷을 대신해 사립유치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단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혀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처리 결과가 부산 교육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교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교과부는 고위 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청렴의 의무와 교육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임혜경 교육감에 대해 부산 시민들과 국민, 모든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혜경 교육감의 금품비리가 일벌백계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계에는 부정부패와 비리가 당연히 되고, 학생들에게 제시할 도덕적 기준이 무너짐으로써 교육 불가능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인터넷과 뉴스, 신문을 통해 연일 보도되어 학생들이 ‘옷 로비 비리’를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임혜경 교육감은 이미 학생들 앞에 교육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잃었다. 이윤배반적인 임혜경 교육감이 자리를 보전한다면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유치원 원장을 앞세우고 가서 옷값을 계산토록 하고, 다시 가서 업체 사장에게 공짜 옷을 갈취하고도 ‘돌려줬고 대가성이 없으니, 죄 없다’는 임혜경 교육감과 학생들의 소위 ‘뺑 뜯기(금품갈취)’ 행동의 결과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친구들에게 뺑 뜯은 아이들을 불러서 조사하면 ‘빌렸다’고 변명한다. 교사는 앞으로 아이들의 이런 변명을 들

으면 ‘그래, 돌려주면 학교폭력이 아니니 너는 잘못이 없다’라고 해야 할 것인가? 피해 학생과 그 부모는 ‘빌려 줘’라는 말로 포장한 금품갈취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인가?

뺨 뜯는 임혜경 교육감은 그 입으로 학교폭력, 인성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임혜경 교육감의 존재는 앞으로 학생들 교육을 망치는 것이 될 뿐이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 임혜경 교육감으로 인해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감은 뺨 뜯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는 가르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로또라도 좋으니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지난해 해임된 금품 비리 교장과 교사들도 이번 교육감 비리 사건의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임혜경 교육감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거나 자리를 지킬 경우 그들 또한 학교 안에 망령으로 되살아 날 것이다.

임혜경 교육감이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교육자로 생각한 적이 있다면, 자신의 직을 이용해 주변인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교육감이 된 것이 아니라면 교육감직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교육을 망치기 전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임혜경아웃시민대책위에서는 앞으로 교육감의 거취를 지켜보며 교육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임혜경 교육감의 사퇴를 위해 부산 시민들과 폭넓게 연대하고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언행불일치

임혜경 교육감은 비리행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 임혜경아웃시민대책위원회 향후 활동 계획

1. 6월 18일 ~ 22일 : 교육감 사퇴 촉구 일인시위, 교육청 앞, 17:30~18:30
2. 6월 25일 ~ 7월 6일 : “ ”, 서면환승역, 18:00~ 19:00
3. 검경에 엄정 수사 촉구 진정
4. 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4. 경찰 조사결과와 법적 처분 추이에 따른 교육감 사퇴 촉구 투쟁 실천

2012년 6월 18일

임혜경교육감 원스트라이크아웃 촉구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 기사

민주당 “서울대 폐지 ‘대선 공약’ 추진”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이 대선 국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표심을 가를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1일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에는 조경태 의원이 ‘서울대 학부과정 폐지 및 대학원 중심대학화’를, 손학규 상임고문은 ‘서울대와 지방국립대의 공동학위제 실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현재 구상은 서울대의 학부를 인문대와 자연대 등 기초학문 일부만 남겨두고 없애는 대신, 부산대 등 전국 주요 국립대를 학문별로 특화·육성시켜 ‘제2’, ‘제3’의 서울대로 키우자는 것이다. 또 이들 국립대를 연합체로 묶어 강의와 학점, 교수의 교류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졸업장도 공동으로 수여해 서열화 및 학벌주의로 인한 폐단을 완화시키자는 것이 골자다.

파리 1대학, 2대학 식으로 국립대학을 각 캠퍼스 체제로 운영하는 프랑스 국립대 체제가 모델이다.

‘서울대 폐지’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 등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 문제에 천착해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언급돼온 문제다. 대학 서열이 곧 사회적 계급을 결정짓는 학벌주의가 광적인 사교육 열풍 등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의 근본 원인이며,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부산일보 / 2012년 6월 30일 /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임혜경 교육감 검찰 송치 과정·전망] 경찰 ‘웃 로비’ 대가성만 입증, 추가의혹 못 밝혀

26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임혜경 교육감 사퇴와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을 둘러싼 ‘웃 로비’ 의혹은 거짓말과 은폐, 입맛추기로 점철되어 있어 수사는 만만치 않았다.

한 번만이라도 비위가 적발되면 물러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면 이번 ‘웃 로비’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모두 ‘아웃’됐을지도 모른다.

△석연창은 진술 번복...‘윗선’은?=부산 북구의 A 유치원과 동래구의 B 유치원 원장은 지난해 4월 스웨덴 공무 출장을 앞두고 있던 임 교육감을 데리고 광주시 남구의 고급의상실을 방문해 180만원 어치의 고급의류 3점을 사서 건넸다. 이후 A 유치원은 3학급(84명)의 학급증설을 인가받고 B 유치원은 국무총리상 등을 연거푸 받으면서 대가를 바란 뇌물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처음 ‘웃 로비’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임 교육감은 펄쩍 뛰었지만 경찰이 유치원과 의상실을 압수수색해 신용카드 전표와 진술을 확보하자 그제서야 ‘대가성이 없는 선심성 선물’이라며 시인해 체면을 구겼다. 또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웃을 받은 지 1년도 더 지난 올 5월에 돌려주면서 은폐를 시도해 도덕성 실추를 자초하고 말았다. 애초에 스웨덴 출장 때 A·B 원장과 특정 교구업체 사장 일행과 동행해놓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명해 의혹을 키운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B 유치원장이 ‘유치원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받는 과정에서도 석연창은 진술번복이 반복됐다.

당초 동래교육지원청의 상훈 담당자는 ‘일체의 상부지시가 없었다’고 했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기하자 상훈 업무와는 무



학부모알림란

관한 시교육청 유아담당 C 장학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C 장학관은 유아시설 준공식 행사 때 참석한 B 원장과 교육감을 한자리에서 만났고, “그 때 교육감이 B 원장을 칭찬하는 것을 듣고 총리상으로 추천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위를 따지기 위한 거짓말 탐지 조사를 거부해 의구심을 키웠다.

A·B 원장도 처음에는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었다고 딱 잡아땀지만 증거 앞에서 “유치원 운영에 도움을 기대했다”며 번복했다.

△‘옷 로비’ 외의 추가 의혹은? = 경찰이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을 때 임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였다. 특정 교구업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특혜 제공 여부와 스웨덴 공무여행 때 항공권과 출장비를 제공받았는지, 그리고 사립 유치원쪽으로부터 ‘옷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였다.

경찰은 지난 3월 교구업체를 시작으로 여행사와 유치원, 의상실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자 21명을 36차례나 소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3천쪽에 이르는 검찰 송치 서류가 방대한 수사규모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옷 로비’ 대가성 외에는 수사 결과 밝혀낸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만큼 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검찰과 법원 모두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해 민선 교육감의 직무수행이 중단되는 사태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내에 경찰의 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조만간 추가 수사를 벌일 필요가 있는지, 혹은 같은 혐의로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 / 2012년 6월 27일 / 김승일 기자 dojune@

교사 때리는 학생, 신고로 맞선 스승

교사 향해 “아저씨” 등 막말, 일선 고교 폭행·폭언 심각

일선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과 폭언 행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부산에서 학생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교사가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생이 교사에게 발길질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5월 중순 부산 A고의 등교 시간에 교문에서 학생지도를 하던 박모 교사는 목걸이를 한 채 학교에 들어서던 2학년 김모 군을 발견했다. 박 교사는 김 군을 제지한 뒤 목걸이를 압수했다. 그러자 김 군은 원색적인 욕설과 ‘아저씨’라는 호칭을 섞어가며 대들었고 이 과정에서 1학년생 한 명이 김 군 쪽에 가세했다. 이들에게 떠밀린 박 교사는 땅바닥에 넘어졌고, 해당 학생들은 넘어진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B고에서는 수업방해 행위를 지적한 교사를 발로 걷어차고 물건을 집어던진 사건도 있었다. 지난 4월 초 이 학교 1학년 수업시간 중 이모 교사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던 김모 군에게 “복도에 나가 쫓아앉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김 군은 이를 거부했다. 이 교사는 수업

국제신문 / 조봉권 박정민 기자 / bgjoe@kookje.co.kr / 2012-07-01

◆ 부산지부 회원연수 (회원가족의 날) 를 개최합니다.

임원 중심으로 매년 상,하반기 진행하던 연수를 올해는 회원연수로 진행하며 회원들과 함께 상반기를 평가하며 더 알찬 하반기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즐겁고, 알찬 연수에 온가족이 함께 해 주세요.



- 일 시 : 2012년 7월 21일(토) 2시 -22일(일) 11시
- 장 소 : 통도환타지아 콘도
- 회원가족의 날로 진행하며 콘도사용과 워터파크 40% 할인 이용을 박무준 회원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맞을 수 있게 많은 참여바랍니다.
- 출 발 : 2012년 7월 21일 14시 명륜동 지하철역 2번 출구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서명활동 전개합니다.

임혜경 교육감은 5월 29일 재의를 요구하며 이 조례를 시 의회에 반송하였습니다.
7월 본회의에 상정 시 제출할 서명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봉하는 서명지 및 홈페이지 서명지 출력하셔서 많은 서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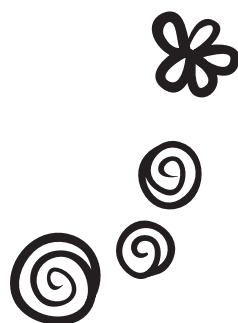
◆ 2012 달밤트레킹

- 일 시 : 2012년 8월 3일-4일
- 장 소 : 삼랑진에서 구포까지 (부산역에서 기차로 삼랑진까지 이동)
- 대 상 : 중학생 이상 (자원봉사시간 4시간 인정 됨)



6월 이리렇게 보냈어요

- 6월 1일 신입회원 교육
동래희망넷 새학교 강좌
- 6월 4일 급식운동본부 긴급회의
- 6월 6일 도자기 소모임 (최은화 채승영 김옥랑 박선희)
오봉숙 시모상 문상 (박선희)
- 6월 7일 소식지 발송 (이영주 박선희 김정숙)
- 6월 10일 민주항쟁 25주년 기념식 (김정숙)
- 6월 12일 교육희망넷 운영위 (박선희 김정숙 장유성)
- 6월 13일 식생활교육 영남권네트워크 회의 (대구-김정숙, 김혜례)
급식운동본부 운영위 (박선희) 동구마실도서관식생활교육 (김정숙)
- 6월 14일 급식조례관련 이일권 이동윤의원 면담 (박선희)
식생활넷 회의 (김정숙)
동래교육희망넷 (장유성)
- 6월 16일 김해지부 10주년 기념식 참석 (박선희 김정숙 이규남)
- 6월 17일 회원만남의 날 신천마을 텃밭 (22명)
- 6월 18일 교육감퇴진 기자회견 (김정숙), 학습선택권조례 1인시위 (김정숙)
학습선택권조례 서명활동-서면 (김옥랑, 김정숙)
- 6월 19일 전국 이사회 (박선희)
- 6월 20일 동래생협 연산 매장 개장 (김정숙)
- 6월 21일 박무준회원탐방 (김정숙, 박선희, 신지원)
교육감 대책위원회 회의 (김정숙 박선희)
최종수 시민생협 이사장 모친상 (김정숙, 이규남, 김혜례)
- 6월 22일 식생활박람회 (김정숙, 김혜례)
- 6월 24일 참학 텃밭가꾸기 (김정숙, 박선희, 조정화, 김옥랑)
- 6월 25일 일제고사 1인시위 (박선희 김정숙)
- 6월 26일 학습선택권 조례안 1인시위 (박선희 김정숙)
일제고사 반대, 교육감 퇴진 교육청 집회
인권위원회 표준인권조례 설명회
학교 급식 전국 간담회 (김혜례)
- 6월 27일 영화소모임 (최경희, 박선희, 백미영, 김정숙, 김옥랑, 이미옥, 함정화)
- 6월 28일 교육감 퇴진 대책위원회 (김정숙), 낙동강지킴이 후원의 밤 (이규남, 김정숙, 김종만)
- 6월 29일 시민생협이사회 (박선희, 김정숙, 김혜례)
- 6월 30일 참학 텃밭가꾸기 (김옥랑, 조정화, 김정숙, 김석준, 박선희)



6월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채승영(2만), 김정숙(2만), 박옥화(2만), 김옥순(2만), 이금숙(a, 2만), 장선희(2만, 2개월), 신영희, 박선희, 박성미, 이행봉, 김기영, 조금제, 박은숙, 송경희, 홍동희, 박희옥, 김윤자, 이일권, 공외정, 류정애, 김종철(2만), 윤내경(2만), 윤신옥, 김형선, 배선임(2개월), 최경희(a), 조명숙(3만), 김정원, 문재경(5천), 윤연섭, 조석현, 노희정, 하주연, 맹일영, 이미연(3개월), 전순실, 손진숙, 홍정희, 이남숙, 최경희(b), 이희주, 정운숙, 최한, 이재희(5천), 고혜경, 신수자, 최승희, 김현준, 심미숙, 유은정, 김수영, 이혜숙, 양윤자, 김경선, 심성보, 광차섭, 박미순, 김경희(a), 박무준, 정수련, 황선애, 허운영, 함현주(3개월), 지영경(5천), 김종찬, 황송미, 정동희, 고창민, 황보덕, 오봉숙, 김동철, 유명희, 김석준, 광태순, 장순옥, 이종명, 장지숙, 임석규, 이영주(2만), 신석열(2만), 김태만, 박유미, 송명희, 광은순, 장유성, 신지원, 허미자, 이승중, 민문식, 김익수, 이성하, 정재천, 김원재, 장동제, 이규남(2만), 임주연, 송기수, 송철동, 이선애, 김정애, 주우명, 권서용, 김경숙(a), 배종만, 백미영(5천), 문명숙, 송승희(3개월), 김법기, 최은화, 서인석, 강순금(2만), 임창영, 김정열(5천), 이정형, 강정아, 손건태, 조원국, 남광우, 서권석, 김춘미, 백준단, 안종기, 최정홍, 황은옥(2만), 서정호(a), 문혜정, 장말선, 백성희, 서정호(b, 2개월), 정찬호, 박경아, 정연재, 문영식, 우성만, 정명주, 왕병구(2만), 강은조, 서경애, 노기섭, 장현숙, 김영미(a), 김경준, 김상현, 김현봉, 고내현, 노영민, 부지환, 이재홍, 김혜례, 강재성, 최종수, 박덕수, 문인숙, 이병숙, 윤영근, 권인근, 이미옥, 김성희, 박귀남, 김재홍, 성인심, 배문주, 손희정, 권영순, 임영선, 김경희(b), 박준건, 강아련, 김옥랑, 김성미, 이수진, 이혜영, 서석태, 이인경(5천), 조정화, 주정현, 김영희(b), 이주현, 편국자, 김영숙, 이정인, 최지선, 최점순, 여진호, 조병준, 김동희, 이내훈, 이은정, 노귀전, 석은경, 남경화, 송부희, 함정화, 장정인, 정미경, 정동주, 제진희, 최영순, 양미진, 장은숙, 김은정, 강석희, 김경숙(b), 김영미(b), 윤송태(2개월), 김수진, 이금숙(b), 염상미, 노혜경, 정이덕

■ 6월 결산 보고

수입	지출내역	지출금액	이월금
이월금 5,561,380	중앙 분담금	557,200	5,302,620
	전국이사회	70,500	
회비수입 2,385,000	사무실 운영비	272,300	
	연대사업비	30,000	
후원금 100,000	상근자월급	500,000	
	소식지 발송비	108,260	
이자수입 0	소식지 인쇄비	330,000	
	소식지봉투제작	600,500	
기타수입 0	사무실 임대료	275,000	
수입 합계 8,046,380	지출 합계	2,743,760	

- CMS 회원 신청하세요! 사무실에 나오셔서 간단한 양식을 채워주시거나 전화(051-556-1799)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후원금 계좌번호가 변경 되었습니다. 101-2001-6612-01 부산은행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 후원금 10만원은 회원만남의 날 텃밭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 소식지 발송 봉투 2만장 제작으로 이번 달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참 교 육 을 위 한 전 국 학 부 모 회

주요사업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활동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서, 성명서 발표, 서명·청원운동
- ◆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회여론 조성
- ◆ 학교내 돈봉투 없애기 운동
- ◆ 국회·시·도 교육위원회 참관
- ◆ 학교의 부당찬조금 및 잡부금 없애기 운동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부모 학교참여 운동

-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강좌
- ◆ 학교운영위원회 문의상담
- ◆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교육강좌·소모임 활동

전국 각지부별 월례 교육강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 ◆ 교육현실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강좌
- ◆ 소모임활동 : 교육문제연구, 역사탐방, 동화모임, 미술모임, 글쓰기, 풍물 등
- ◆ 부모역할 훈련
- ◆ 예비학부모 교실(초·중등)
- ◆ 지부별 월례교육 강좌

출판·홍보활동

학부모의 활동과 목소리 담은 ‘학부모신문’발간

- ◆ 매월 학부모 신문 및 지부 소식지 발간
- ◆ 신입회원, 임원교육자료집 발간

회원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올곧고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학부모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는 월 1만원이상 내시면 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느 단체의 재정지원 받음 없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참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합시다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1동
352-2번지
(야마하피아노 3층)
문의 : 051)556-1799

<http://hakbumo.or.kr>